

우리 출판계의 현안을 점검한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디지털 시대 대비해야...
출판인프라 구축 위해 출판인의 연대 요구돼

박광성 | 생각의나무 대표·사회

박재환 | 이플리오 대표

장인용 | 지호 대표

신매체의 등장으로 출판의 입지점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종이책의 종말 운운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출판인들은 새로운 위기상황을 출판의 생존기반을 넓혀나갈
호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장 출판인들을 모시고
우리 출판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광성 ——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출판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실체를 확인하기보다 미리 소문에 짓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상황은 오히려 출판의 생존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한국출판의 가능성은 무엇이고, 변화된 상황에 우리 출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유통분야의 혁신적 변화 요구돼

장인용 —— 그동안 출판계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지요. 이제는 출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유통분야입니다. 출판유통의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통을 재정비하고, 인터넷 서점과 같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재환 —— 유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지불에 관

한 잔고 문제와 반품문제는 출판사에 치명적입니다. 최근 인터넷 서점이 새로운 유통경로로 등장하고 있는데, 출판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온라인 서점의 등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인용 —— 그런데 문제는 기술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종이책 시장의 유통구조가 무너진다면, 새로운 유통시장이 세워질 때까지 종이책 공급이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박광성 ——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로서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출판계의 당면과제입니다.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용 ——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넘어가는 2단계 유통이 결정적인 취약점입니다. 소매상의 도산이 도매상에 여파를 미치고, 이것이 출판사에 큰 타격을 입히지요. 도매상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매상을 중심으로 하는 체인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소형매장이 제한된 독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양



박광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출판산업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실체를 확인하기보다 미리 소문에 짓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는 오히려 출판의 생존기반을 넓힐 수 있는 호기입니다.

반품문제의 경우 출판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 시기성과 내용성을 따진다면 책의 사이클과 판매부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저수준으로 예측해서 출판하면 실패할 리 없습니다. 오는 과학적 출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재환



장인용

디지털 환경에 좀더 쉽게 적응하려면,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기획서를 펴내고 있는 신생출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인프라가 확보돼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독자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환 —— 사실 유통문제는 전반적인 사회인프라를 개선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판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반품문제의 경우 출판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 시기성과 내용성 등을 따진다면, 책의 사이클과 판매부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저수준으로 예측해서 출판하면 실패할 리 없습니다. 과학적 출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만 각 출판사가 PO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만, 예측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문자 생산도 한 방법일 수 있지요.

박광성 ——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통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유통구조를 그냥 시장논리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책 정가의 차별화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마치 시장의 싼 옷과 백화점의 비싼 옷을 구미에 맞춰 사듯, 책도 싼 책과 비싼 책을 각각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값이 비싸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거리낌없이 책을 구입하는 문화적 풍토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말하고 싶군요.

디지털 문명은 출판 유통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유통구조는 독자들의 소비욕망과 생산자의 출판욕망을 잇는 긍정적인 고리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각종 자료수집, 홍보, 서점 디스플레이, 고객유치전략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장인용 —— 이제 사회는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판도 대량생산·대량보급 체제에서 벗어나 고급스런 책 혹은 소수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기획해야 합니다.

박광성 —— 책의 기획·생산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지, 과잉생산한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과잉생산해 쓰레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획이 중요하지요.

책 소비자들의 독서문화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쁜 책이

많이 팔리고, 좋은 책인데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쾌락적 소비욕망이 함량미달의 책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쾌락적 소비욕망을 창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재환 —— 저는 서평문화를 포함해 토론문화의 부족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독서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판계가 먼저 방송에 토론마당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인용 —— 베스트셀러 위주의 소비경향은 많이 개선돼가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다 보면 독자들의 책 소비가 좀더 건전한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요.

박광성 —— 지금까지 출판산업내에서 유통과 생산, 소비의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출판이 사회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때 출판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요.

출판 인프라 구축 절실해

장인용 —— 디지털 환경에 좀더 쉽게 적응하려면,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기획서를 펴내고 있는 신생출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인프라가 확보돼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독자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투자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문화관광부 백서를 보니 도서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이 컴퓨터 구입비고,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안 된 실정입니다. 먼저 도서관에 장서를 갖춰야 합니다.

박광성 —— 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도서구입과 인력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운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과거의 성취와 새로운 것을 전략적으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에 출판을 적극적으로 배려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판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장인용 —— 우리 나라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은 공교육에도 책임이



우리 출판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참석자들

있습니다. 공교육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만 읽다 지치고 마는 국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박광성 —— 국가차원에서 출판문화를 위한 연구와 자금이 지원돼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조사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판생산과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재환 —— 그밖에 출판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편집자 양성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데서 파생되는 문제기는 합시다만, 출판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뉴미디어 시대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출판역사가 오래됐지만, 유수한 1세대 출판사들 중 현재 살아남은 출판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유권뿐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받은 2세대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광성 —— 유통전문가를 포함한 출판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오차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수요와 그에 따른 기획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판사들이 전문영역별로 연대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박재환 —— 아직은 출판계의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의 양적 성장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 출판사들의 힘을 결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출판단체들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광성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가 출판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출판사들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판이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출판계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예컨대 웹사이트를
개설해 출판사
홍보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거나, 전자책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활용방안 강구해야

장인용 —— 출판계는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출판산업의 정체성 자체가 재정립돼야 합니다.

박재환 —— 사실 뉴미디어가 생긴 덕분에 출판계가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웹사이트를 개설해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전자책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지요. 뉴미디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박광성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우리 출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출판의 다양성 문제, 아이টে를 기획해서 제품화하기까지의 공정에 걸리는 속도의 문제, 책을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욕구를 끌어내는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실질적 콘텐츠인 출판은 시스템상의 인프라가 보완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출판인들이 긴밀하게 연대·협력해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장기적 비전으로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김정은 기자